

元借出 高麗寫經僧 作品의 推定*

장 충 식**

- I. 머리말
- II. 고려의 對元關係와 寫經僧
- III. 작품의 현상과 발문
- IV. 기타 참고사경
- V. 사경의 형식
- VI.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 문화현상 가운데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은 대장경 미술이다. 그 가운데서도 金銀字 대장경의 제작사실은 조형사적인 차원을 넘어 기술사적인 측면에서도 주목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종이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寫經紙와도 다른 독특한 楮紙를 사

* 이 논문은 장충식 교수께서 미술사학회 제141회(2004년 9월 18일) 월례연구발표회에서 구두발표한 내용에 가필·정정한 것이다. 필자의 갑작스런 有故로 인하여 최종교정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맡았으며, 필자의 소속과 직급은 원고 탈고 시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용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경문화의 종주국으로 등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경을 조성하면서까지 끈질기게 저항하였던 고려는 13세기 후반 원에 굴복하였으나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원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원의 지배하에 놓인 고려는 잦은 寫經紙 요청, 또는 寫經僧 징발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물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것은 지나친 조공과 착취에 따른 원의 호전적 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교문화의 오랜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나 금석문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많게는 100여 명의 사경승이 원나라에 차출되어 사경을 완성한 후 귀국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필자의 관심사는 이때의 사경작품에 대한 오랜 추적에 있었다. 다행히 근래 이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그간 확신을 갖지 못하였던 기존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로 현존 작품의 현상과 함께 발문의 분석을 통하여 시도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이들은 고려의 금은사경과 다른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당시 고려사회의 對元關係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문물의 교류, 나아가 고려사경의 위치와 사경승, 그리고 현존 작품의 분석을 통한 양식적 특징 파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II. 고려의 對元關係와 寫經僧

고려는 對蒙抗爭의 오랜 전쟁 속에서도 고려대장경 雕造와 같은 세계 굴지의 문화업적을 남겼으나 결국은 1259년 몽골에 굴복하게 되었고, 이후 元¹은 고려에 대한 무리한 朝貢과 약탈, 나아가 고려를 자신들의 세계질서 속에 편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元宗의 태자를 인질로 잡아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후 원의 駙馬國이 되는 충렬왕대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원에 가 있는 충렬왕과 태자, 태자비 등 三殿의 무사귀환을 염

1 이곳에서의 元(蒙古帝國)이란 1271년(고려 元宗 12년) 쿠빌라이 칸에 의해 大都, 즉 지금의 北京에 수도를 정한 이래 1368년 朱元璋에 의해 元朝가 붕괴되어 몽고고원으로 물러가 北元이 성립되기까지의 97년간을 지칭한다. 이는 고려 元宗(1259-1274) 만년으로부터 공민왕(1351-1374) 17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2 『高麗時代의 佛畫』(시공사, 1997), 도판 6 根津美術館 소장 阿彌陀如來圖, (向右)伏爲 皇帝萬年 三殿行李速還本國之願新畫成 彌陀一幀, (向左)施主權 福壽 法界生亡兼及己身 超生安養 同願道人戒文同願朴孝眞 大德十年.

원하여 제작한 혼치얏은 현존 고려불화의 畵記에서도 엿볼 수 있다.²

그러나 원과 고려는 완전한 정복자와 피정복자이기 보다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³ 또한 징기스칸은 강동성에서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 軍中에 사신 慶都處思를 파견하여 “사후 고려와 형제지맹을 맺으라.” 하였으며, 1259년 쿠빌라이 칸은 “高麗萬里之國 自唐太宗親征而不能服 今其世子 自來歸俄 此天意也”라 한 것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⁴ 이렇게 고려와 원의 관계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이면서도 원은 문화적 열등에 대한 자기 방어의 수단을 외교적 수완으로 활용하였으며, 고려는 외부적으로 몽골의 정책을 존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는 등 이른바 事而不服, 卑而不屈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역시 불교사상이 갖는 부정을 통한 긍정의 도리를 나타내는 이중적 성격으로 이해된다.⁵

한편 元은 高麗人으로서 喇嘛教 승려가 된 자를 고려에 파견하기도 하였고,⁶ 元의 수도 大都의 집결지인 通州 관내에 唐代 新羅塋과 같은 고려인의 집단 거주지 ‘고려장’이 존재하여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⁷ 또한 공민왕 3년 당시 元의 수도 大都에 거주하는 고려인 남자가 3만 명이나 되어⁸ 자연 이들 고려인들 거주지를 중심으로 고려의 사찰이 건립되는 등 양국의 관계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또 『元史』에 의하면 ‘在元 高麗僧들이 쿠빌라이 칸의 皇后宮에 출입하는 장성군 부인

³ Baasanjavyn Lhagva, 「몽골인과 한국인」, 『Mongolia』 96 Korea Exhibition(〈주〉지.에프, 1996), p.27. “고려·몽골정책은 여타 나라와 달리 단순히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속관계로라도 주교섭대상을 이전의 金國이나 南宋이 아닌 고려로 정하였고, 몽골과 고려의 혼인은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일부 봉건 영주들 간에 맺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의 관계였고, 충렬왕이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의 공주와 결혼한 뒤 그 지위가 제국 내에서 7위로 공식 인정하였고, 일본을 정토하는 征服行省의 사령관이 忠烈王이며, 武宗 翁립시 반대파인 아난다를 주살한 것도 충렬왕의 아들이며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인 충선왕이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몽골인들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임용이나 세습에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⁴ Baasanjavyn Lhagva, 위의 글 및 『高麗史』 世家 25, 「원종 경신원년」(1260).

⁵ 이러한 사상은 바로 『雜寶藏經』에 보이는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는 내용과 상통한다.

⁶ 『高麗史』, 世家 31, 「忠烈王 4條」, “충렬왕 20년(1294년) 7월 원나라에서 吃折思八 八哈思를 보내어 沙門을 보호하라는 조서를 가지고 오거늘 백관들이 도포와 笏을 갖추고 승려들을 거느리고 영접하여 肅陵寺에 머물게 하였는데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아니하였다. 홀절사팔이란 蕃僧의 이름이고, 팔합사란 것은 蕃師의 僧職 칭호였다. 그는 본래 진도군 사람으로 신미년에 외적[三別抄]들을 토벌할 때에 포로로 잡혀 서쪽으로 가게 되었으며, 드디어 帝師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았다.”

⁷ 國史編纂委員會, 『高麗史』, 第20卷, p.303.

⁸ Baasanjavyn Lhagva, 앞의 글, p.28.

임씨의 후원으로 大都의 남쪽에 절을 지었으며, 忠宣王이 세운 절 내지 고려 출신의 환관 김공의 부인 손씨가 지은 절 등 “고려 이름을 붙인 절들이 서로 건너다 보일 만큼”이라고 했을 만큼 당시 大都에 고려인들이 지은 절이 많았다.⁹ 또한 원 세조 때는 燕京 南城의 남쪽에 興福寺를 세우고 高麗僧을 주지로 삼은 사실 외에도 『東文選』 「大都天台法王寺記」에 의하면 太醫院使 趙公에 의해 天台 法王寺가 건립되기도 하였는데, “지금 天子의 도성 밑에 있어서도 高麗로 불리는 절이 여기저기 있으니, 공이 이 일에 급급한 것은 의당한 일이다.”라는 내용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유천부사 李公 三眞이 安富리의 집을 회사하여 부처의 사당을 만들고 이름을 法王寺라 하여 시골 중 孜信이란 자를 불러 주장하게 하였다.”¹⁰는 기록도 많은 절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에 달하는 고려인들의 元에서의 거주와 더불어 충렬왕대 이후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7명의 왕이 태자 신분으로 元에 상당 기간 머물렀고, 충렬왕과 충선왕·충숙왕·충혜왕·공민왕 등이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았던 사실이나 원종 14년 원의 八思巴文字¹¹로 된 공문서가 전달되었고,¹² 1295년(충렬왕 21) 정월 元나라에서 蒙古字 教授 이망고대를 파견¹³하였던 것으로 봐 元의 paspa(八思巴) 문자가 이후 고려에서 수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자는 1639년(인조 17)의 것이긴 하지만 「清太宗功德碑」¹⁴ 및 松廣寺의 高麗文書 중 八思巴 문자로 쓰여진 송광사 티베트文 法旨가 전해지고 있어 그 교류의 실상을 알게 한다.

일찍이 元 세조는 ‘고려는 작은 나라이지만 匠工·奕技가 모두 한인보다 낫다.’고 하여 고려의 문물을 찬양하기도 하였다.¹⁵ 무엇보다 고려의 대장경 미술은 괄목할 만 하였는데 이는 종이의 수출에서도 특히 주목된다. 11세기 후반부터 고려의 종이 수출되었는데 그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1221년에는 고려에 파견된 몽골의 사신이 10만장의 종이를 공물로 제시

⁹ Baasanjavyn Lhagva, 위의 글, p.29.

¹⁰ 『東文選』 第71卷, 記, 「大都天台法王寺記」.

¹¹ 당시 元의 문자는 西藏 샤카파의 總師이며 帝師였던 喇嘛僧 八思巴가 제작한 八思巴 문자였다.

¹² 『高麗史』, 世家 27, 「元宗 14 條」, “元나라 사신이 왔다. 왕이 선의문에서 황제의 조서를 받았는데 그 글은 새로 지은 몽고 글자로 쓰여 있었으므로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

¹³ 『高麗史』, 世家 31, 「忠烈王 4 條」.

¹⁴ 『朝鮮金石總覽』 下, pp.874-875.

¹⁵ 『元史』 卷 159, 列傳 46, 「趙良弼 條」.

¹⁶ Baasanjavyn Lhagva, 위의 글, p.30.

한 것도 고려 종이의 우수성 때문이었다.¹⁶ 뿐만 아니라 양국의 불교미술에 대한 교류 역시 매우 활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 현존하는 대표적 석조건축은 개성 근교 敬天寺에 건립되었던 석탑이나 공주 마곡사, 김제 금산사 석탑 상륜부 등은 모두 원 양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제 고려사경의 제작과 전래, 나아가 원에의 전수 등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 자료를 추구해보면 충렬왕대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앞서 현존 기록상으로는 고려 제3대 定宗 원년(946)에 왕(王堯)이 발심하여 銀字藏經을 敬造하였고,¹⁷ 또 같은 책에는 고려 제4대 光宗이 재위 3년(952)에 大般若波羅蜜多經 1부를 사경케 하였는데 광종은 권수에 스스로를 ‘菩薩戒弟子高麗國王王昭’¹⁸라 하였다. 이로 미뤄 본다면 고려는 國初부터 금은자의 대장경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짐작되는데 이때의 大般若經 1부의 寫成이야말로 그 수량 면에 있어서 고려 대장경 사경 사업의 효시로 봐도 좋을 것이다.¹⁹ 다만 현존 최고 사경은 穆宗 9년(1006)의 紺紙金字大寶積經(日本文化廳)인 점도 참조된다.

이후에도 宋나라에서 五季의 난으로 天台經卷을 망실하자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天台敎의 論疏를 구하였으므로 사문 諦觀을 파견하여 “天台敎論疏諸文”을 보냈으며,²⁰ 文宗 31년(1077)에는 왕이 興王寺에 행차하여 새로 이루어진 금자법화경을 轉讀하였다.²¹ 또는 숙종 원년(1096)에는 乾德殿에서 3일간 道場을 베풀고 仁睿太后가 願성한 화엄경을 전독하였고, 또 동왕 6년(1101)에는 왕이 日月寺에 행차하여 금자로 쓴 妙法蓮華經이 이룩됨을 경축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는 玄化寺에 행차하여 銀으로 쓴 “瑜珈顯揚論”을 慶讚²²하였다. 등 사경 사업은 면면히 이어졌다.

충렬왕 15년(1289) 10월에는 금자대장경이 완성되자 왕이 공주와 함께 행차하여 이를 관람하고 친히 경찬회를 베풀었다²³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특히 이 시기는 원나라로부터

¹⁷ 金王寂, 『遼東行部志』 第7張, 遼海叢書15(1987), “乙卯觀銀字藏經 上題云 高麗王 王堯發心敬造 大晉開運三年丙午二月日”

¹⁸ 위의 책, “又大般若波羅蜜多經第一部 卷首云 菩薩戒弟子高麗國王 王昭 以我國光德四年 歲在壬子秋 敬寫此經一部 云云” (光德四年壬子是 光德3年, 즉 952년 임)

¹⁹ 大般若經 1부란 600部 般若(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波羅蜜이 각각 百部로서 도합 六百部)를 뜻하므로 상당히 방대하다.

²⁰ 權相老, 『朝鮮佛教略史』 및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 p.68.

²¹ 『高麗史』, 世家 9, 「文宗 31年 3月」.

²² 『高麗史』, 世家 11, 「肅宗 元年 10月」, 「肅宗 6年」, 「肅宗 7年」.

²³ 『高麗史』, 世家 30 및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5年 10月」.

여러 차례에 걸친 사경승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놓칠 수 없는 중요사항이다. 즉 충렬왕 16년(1290) 3월에는 원나라 世祖가 금자경을 寫함으로써 글씨 잘 쓰는 승려를 부르거늘 이에 승려 35인을 원나라에 보내는 것을 필두로 하여, 4월에는 사경승 65인을 원에 보내고, 또 8월에는 장군 趙瑊을 보내어 사경승을 원에 데리고 가는 등²⁴ 고려와 원의 관계는 사경업을 통하여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때 趙瑊이 원나라에 인솔하였던 사경승의 집단은 무려 100명이었고 이들은 거의 1년 만에 금자대장경을 완성하였다.²⁵ 또 충렬왕 23년(1297) 8월에는 원이 사신을 보내어 사경승을 徵召하였다든지, 동왕 28년 4월에는 원이 別帖木兒 등을 보내와 사경승을 징발하기도 하고, 3년 후인 동왕 31년(1305)에는 忽都不花를 보내와 사경승을 구하므로 승려 100명을 선발하여 보냈다²⁶는 등의 기록 역시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충렬왕대 사경제작 및 사경승의 역할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의 사경이 과연 어떤 경전을 필사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다만 그 이후의 사실이긴 하지만 『元史』에 나타난 기록은 보면 至治元年(1321)과 泰定3년(1326)에는 西藏經을 金書했다²⁷고 하였으므로 이미 고려의 사경승들은 漢譯經을 위시하여 서장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서사하였음을 알게 한다.

충렬왕을 이은 忠宣王代에 들어서도 사경업은 더욱 왕성하였다. 즉 즉위년(1308)에는 이미 三大藏所에 행차하여 五大部經 쓰기를 명령²⁸할 정도로까지 사경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었다. 이와 함께 이후에는 원나라로부터 佛經紙를 구하는 기사가 자주 보이는데 충선왕 원년(1309), 忠肅王 8년(1321), 충숙왕 後7年(1338) 등 3회에 걸쳐 구하고 있다. 물론 불경지라면 장경의 인행에 사용되는 종이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봐 사경지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충선왕 2년(1310) 6월에는 원나라의 宦者(宦官) 方臣祐를 보내와 금자로 사경 쓰는 것을 감독하는데 황태후가 金薄 60餘錠(片)을 보냈다든지, 또는 원나라의 황태후가 鎖魯花를 보내와 鈔(楮幣, 즉 紙幣) 5천8백錠을 賜하여 사경을 賞하였다²⁹고 하는 것은 모두 元의 황태후가 고려에 의뢰하여 금자대장경 서사를 지원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4 『高麗史』, 世家 30, 「忠烈王 16年」.

25 『朝鮮金石總覽』上, 大邱桐華寺弘眞國尊眞應塔碑, p.597.

26 『高麗史』, 世家 卷31 및 32.

27 『元史』, 卷27, 「英宗本記」 및 同書, 卷30 「泰定帝本紀」.

28 『高麗史節要』, 23.

29 『高麗史』, 世家 33, 「忠宣王 2年 6月」 및 「忠宣王 3年 8月」.

30 禿氏祐祥, 「高麗時代の寫經に就て」, 『寶雲』第25집(1925), pp.8-9.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가 京都의 守屋孝藏의 소장으로 되어 국보로 지정된 화엄경 가운데 나타난 長文의 발문에 열거된 수백 권의 금은자경은 모두 고려 금자경이 모범이 된다³⁰는 견해만 보더라도 당시 고려는 국제적 차원에서 발달된 사경기술을 구사하였다고 짐작된다. 이와 함께 사경제작의 動因 역시 다양하였다고 생각되는데 亡者에 대한 追福을 위하여 금자장경을 旻天寺에서 쓰게 하였든지,³¹ 또는 왕이 금자원의 僧 萬恒을 방문하였으며, 또 반야경을 延慶宮에서 7일 동안 轉讀하여 황태후의 복을 빌었다³²고 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追福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국왕 스스로도 사경을 담당하였던 인물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때의 만항은 금자원의 사경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로 추정되는데, 수일 후 上王이 원나라에 가는 길에 연경궁의 萬僧會에서 사경에 憵당할 비용으로 짐작되는 白金 130斤을 만항에게 시주하였다는³³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사경을 통한 고려 왕실과 사찰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이들 외에도 여러 곳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즉 <金剛山長安寺重興碑>³⁴의 경우에도 장경각을 海藏之宮이라 하여 그 장엄이 매우 화려하였으며, 4부의 장경 가운데 1부는 銀書였는데 이는 황후의 하사품이라 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장안사에는 3본의 화엄경과 법화경 1秩(8권)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금서로서 그 장엄이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의 사경은 국가적 지원 아래 활발히 전개되어 급기야는 고려 금은자대장경을 완성하기에 이르렀고,³⁵ 충숙왕 15년(1328)에 쓰인 益齋 李齊賢의 “金書密教大藏經序”³⁶에서는 밀교대장경 130권이 金書로 사성되었으며, 이는 舊本 90권과 다시 40권을 더 수집하여 사성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元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는 고려 후기의 불교적 현상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31 『高麗史』, 世家 34, 「忠宣王 4年 8月」.

32 위의 책, 「忠肅王 元年 正月」.

33 위와 같음.

34 『稼亭集』, 卷6, 金剛山長安寺中興碑, “……居海藏之宮 皆極其莊嚴 藏經凡四部 其一銀書者 卽皇后所賜也 華嚴二本法華八卷 皆金書 亦極其貴飾…….”

35 張忠植, 「高麗金銀字大藏經」, 『韓國佛教文化思想史』,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1992), pp.302-331.

36 『益齋集』, 卷5.

37 『東文選』, 第111卷 疏.

또 『東文選』에는 無畏撰의 「寫成法華經慶讚疏」, 「寫成金字法華經疏」, 「書寫法華經疏」³⁷의 내용이 전해지는데 무외는 국청사에 있으면서 金堂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였으며, 충숙왕은 그를 國統으로 삼는 등 국가적 비호가 극진하였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뤄 본다면 사경 사업 역시 대장경의 개관 사실과 함께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 가운데 원과 관계된 사경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290년(충렬왕 16) 3월, 원나라 황제가 金字經을 筆寫시키기 위하여 글씨 잘쓰는 僧을 요구하였으므로, 35명을 원나라에 보냈다.³⁸
- ② 同年 4월, 佛經을 筆寫할 僧 65명을 원나라에 보냈다.³⁹
- ③ 同年 8월, 장군 趙城으로 하여금 佛經을 筆寫할 僧들을 데리고 원나라에 가게 하였다.⁴⁰ 즉 100명의 사경승을 불러 모아 원나라에 이르자, 다음 해 금자대장경을 완성하였다.⁴¹
- ④ 同年 9월, 원이 사신을 보내 藏經을 修補함.⁴²
- ⑤ 1297년(동왕 23) 8월,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불경을 필사할 승려들을 선발하였다.⁴³
- ⑥ 1300년(동왕 26) 12월, 원나라에서 伯顏忽篤不花를 보내 향 十五斤과 匹段 三十匹, 絹 三百匹, 鈔 八百六十四錠으로써 장경을 轉讀하였다. 왕이 伯顏忽篤不花로 더불어 妙蓮寺에 행차하여 장경을 轉經하였다.⁴⁴
- ⑦ 1301년(동왕 27) 1월, 왕은 원나라 사신과 함께 흥왕사에서 藏經을 전경함.⁴⁵
- ⑧ 1302년(동왕 28) 4월, 원은 別帖木兒 등을 보내 사경승을 징발함.⁴⁶

38 『高麗史』, 世家 30, 「忠烈王 3 條」, 三月……庚申帝以寫金字經徵善書僧乃遣僧三十五人如元.

39 『高麗史』, 世家 30, 「忠烈王 3 條」, 夏四月丁酉遣寫經僧六十五人如元.

40 『高麗史』, 世家 30, 「忠烈王 3 條」, 八月卒未朔日食 癸酉遣將軍趙城押寫經僧如元.

41 『朝鮮金石總覽』上, p.597, 大邱桐華寺弘眞國尊眞應塔碑 “庚寅 領寫經僧衆 一百員 到大元國大都……至翌年 以金泥 寫大藏經事畢”

42 『高麗史』, 世家 30, 「忠烈王 3 條」, 九月……元遣使修補藏經.

43 『高麗史』, 世家 31, 「忠烈王 4 條」, 八月 癸巳元遣使徵寫經僧.

44 『高麗史』, 世家 31, 「忠烈王 4 條」, 十二月……甲午元遣伯顏忽篤不花 以香十五斤 匹段三十匹 絹三百匹 段八百六十四錠 來轉藏經 己亥王與伯顏忽篤不花 幸妙蓮寺轉藏經 庚子幸慈雲寺轉藏經.

45 『高麗史』, 世家 32, 「忠烈王 5 條」, 春正月甲辰 王與元使 如興王寺轉藏經.

46 『高麗史』, 世家 32, 「忠烈王 5 條」, 夏四月辛未 元遣別帖木兒等 來徵寫經僧.

- ⑨ 1303년(동왕 29) 2월, 원이 怯里馬赤 月兒忽都를 보내어 官素(백색 生絲) 一十五表 裏와 鬘經裏兒絹 三百匹 黃香十五斤 鈔(紙幣)六百一十錠 二十五兩을 가져와 藏經을 전경하였다.⁴⁷
- ⑩ 同年 3월, 백관이 의장을 갖추고 향을 받들어 장경을 전경하였다.⁴⁸
- ⑪ 1305년(동왕 31) 4월, 원은 突烈을 보내어 장경을 전경함.⁴⁹
- ⑫ 동년 5월 廣明寺, 興王寺에 행차하여 장경을 전경함.⁵⁰
- ⑬ 동년 12월, 忽都不花를 보내어 사경승을 구하므로 100명을 뽑아 보냄.⁵¹
- ⑭ 충선왕 원년(1309) 원이 사신을 보내어 佛經紙를 구함.⁵²
- ⑮ 충숙왕 8년(1321) 前益城君 洪淪이 칙을 받들고 화서 佛經紙를 구함.⁵³
- ⑯ 충숙왕 後7年(1338) 원이 사신을 보내어 불경지를 구함.⁵⁴
- ⑰ 1310년(충선왕 2) 6월, 元에서 방신우를 보내 金字 대장경 필사하는 것을 감독케 하고 황태후가 금박 60여 정을 보냄.⁵⁵
- ⑱ 同年 12월, '찬성사 裴挺이 왕의 명령으로 원에 가서 畫佛을 바쳤다.⁵⁶
- ⑲ 1311년 8월, 원나라 황태후가 鎖魯花를 보내와 鈔(楮幣) 5800錠을 불경 필사의 상금으로 보냈다.⁵⁷
- ⑳ 同年 11월, 찬성사 權潛 등이 대장경을 가지고 원에 갔다.⁵⁸
- ㉑ 1312년 8월, 왕의 명령으로 민천사에서 금자로 대장경을 필사하게 하여 모후의 명복

47 『高麗史』, 世家 32, 「忠烈王 5 條」, 二月……丁亥元遣怯里馬赤 月兒忽都 以官素一十五表裏 鬘經裏兒絹 三百匹 黃香十五斤 鈔六百一十錠 二十五兩 來轉藏經.

48 『高麗史』, 世家 32, 「忠烈王 5 條」, 三月甲午 百官備儀 奉御香 轉藏經.

49 『高麗史』, 世家 32, 「忠烈王 5 條」, 夏四月癸未 元遣突烈來轉藏經……甲午設藏經道場于壽寧宮.

50 『高麗史』, 世家 32, 「忠烈王 5 條」, 五月丙午幸廣明寺轉藏經……丁巳幸興王寺轉藏經.

51 『高麗史』, 世家 32, 「忠烈王 5 條」, 十二月……庚寅元遣忽都不花 來求寫經僧 選僧一百 以遣之.

52 『高麗史』, 世家 33, 「忠宣王 1 條」, 辛巳 元來使 求佛經紙.

53 『高麗史』, 世家 35, 「忠肅王 2 條」, 甲午 前益城君 洪淪 奉勅來 求佛經紙.

54 『高麗史』, 世家 35, 「忠肅王 2 條」, 丙辰 元遣使來 求佛經紙.

55 『高麗史』, 世家 33, 「忠宣王 1 條」, 六月……壬子元遣官者方臣祐 來監書金字藏經 皇太后送金薄六十餘錠.

56 『高麗史』, 世家 33, 「忠宣王 1 條」, 十二月……甲寅遣使如元 獻海菜乾魚乾脯等物于皇太后 贊成事裴挺 以王旨如元獻畫佛.

57 『高麗史』, 世家 34, 「忠宣王 2 條」, 八月……癸巳元皇太后 遣鎖魯花 來賜鈔五千八百錠 賞寫經.

58 『高麗史』, 世家 34, 「忠宣王 2 條」, 十一月……壬子贊成事權潛等 貢藏經如元.

59 『高麗史』, 世家 34, 「忠宣王 2 條」, 八月甲戌命書金字藏經 于旻天寺 追福母后.

을 빌었다.⁵⁹

② 1332년(충혜왕 2) 4월, 왕이 三司右尹 김영후를 원나라로 보내 畫佛을 바쳤다.⁶⁰

③ 1338년(충혜왕 후7) 7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불경과 종이를 요구하였다.⁶¹

III. 작품의 현상과 발문

1. 코리아나박물관 소장 紺紙金泥 大方廣佛華嚴經卷十五

이 사경은 근래 새로 발견되어 지난 2003년 2월 17일 동국대박물관에서 조사되었는데 2004년 6월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사경의 크기는 세로 36.3cm 가로 774.8cm이며, 上下間 22cm에 變相(22.5×56.2cm)과 그 우측에 寫成記(가로 8.5cm)를 적었다. 그리고 경문이 쓰인 본문은 상하로 金泥雙邊이 그어져 있고, 그 상하간의 높이는 22.0cm, 본문 첫째 장 크기는 35.5×80.5cm(9張 연결), 金泥絲欄, 全葉 42행(行)에 1행 17자씩 배열되어 있다. 본래 寶相花文 등으로 장식된 表紙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마모된 앞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색천으로 다시 배접되었다. 즉 앞의 변상도 부분을 비롯하여 본문 첫째 장과 둘째 장이 비단으로 배접되어 있어 표지와 표제를 알 수 없으나 각 장마다 뒤쪽에 “周經卷第十五第六張” 등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金泥로 필사되어 있다. 즉 실차난타 번역의 周本 80권본 화엄경 가운데 賢首品을 필사한 것으로서 현수품은 제14권 일부에서부터 15권에 걸쳐 기록된 칠언 절구의 계송으로 구성된다도1.

이 사경 역시 책머리의 변상에 이어 “賢首品第十二之下”라고 하였고, 변상의 화제에도 “賢首品第十二之下”라고 하였으므로 현수품의 후반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사경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제15권 전권을 필사하였다. 사경의 서체는 전형적인 사경체의 圓筆이고 금색 역시 찬란하다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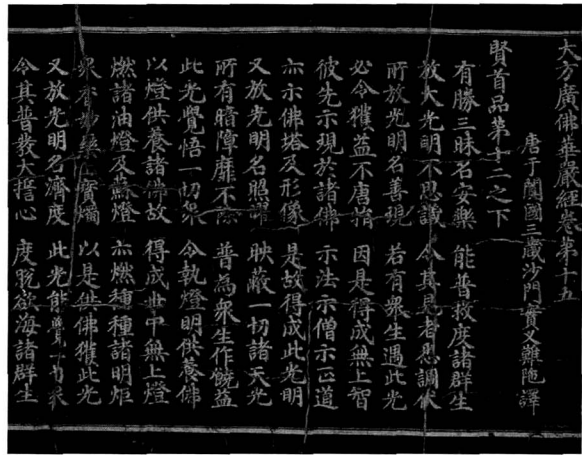
변상의 우측 구획 속의 발원문에 이어서 전개된 변상도3은 해인사 소장 80화엄경 제15권 판화와 그 구도가 동일하다. 즉 우측에는 비로자나불과 그 권속이 배치되었고, 왼쪽의 설

60 『高麗史』, 世家 35, 「忠惠王 條」, 夏四月戊午 王遣三司右尹 金永煦 如元獻畫佛.

61 『高麗史』, 世家 35, 「忠肅王 2 條」, 秋七月……丙辰元遣使 來求佛經紙.



도 1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卷十五 卷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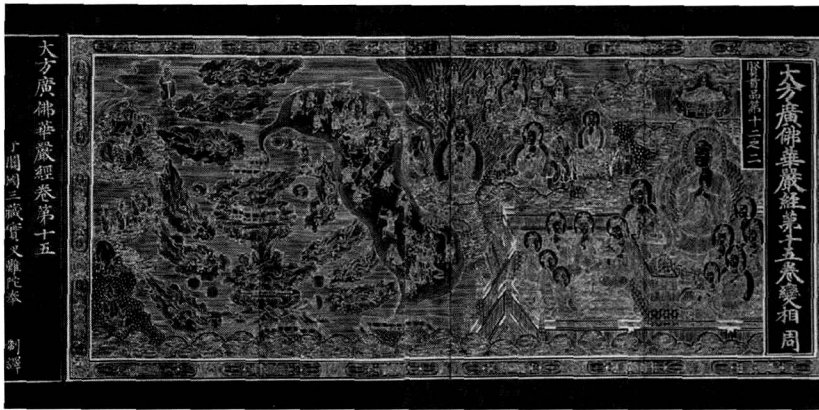


도 2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卷十五 본문, 충선왕 복위 3년, 卷子本, 36.2cm×721.8cm, 보물 제1412호, 코리아나박물관

명 변상 역시 동일한데 이는 해인사 목판 판화도⁴의 불완전하였던 도상의 복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화의 거칠게 표현된 부분이 모두 비룡의 모습임을 이 사경 변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도상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 비룡은 도합 10구로 확인되는데 이는 판화의 구도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화면의 중앙에는 欲界六天을 묘사하였는데 수미산의 중턱에는 해와 달이 있고, 그 우측에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즉 화면의 주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天主 帝釋과 阿修羅와의 전쟁 장면을 나타내었는데 아래쪽의 修羅宮으로부터 나온 이수라 군사들이 코끼리를 타고 나오는 제석천의 군사들과 싸우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⁶²

卷首의 우측에 있는 발원문 부분은 일종의 願牌 형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뒤의 호림 박물관 사경과도 같은 형식이다. 다만 이 사경에서 주목되는 것은 뒤의 호림박물관 소장의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과 같은 연대에 동일한 사경승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성발원문의 형식이나 변상도 그리고 본문 글씨 등이 흡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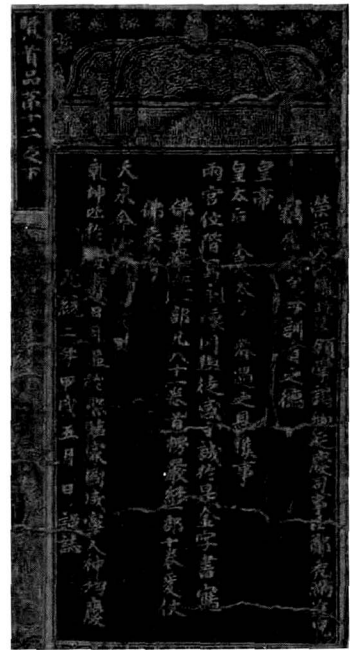
⁶² 張忠植, 『高麗華嚴版畫의 世界』(아세아문화사, 1982), p.43.



도 3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卷十五 변상

것으로 보아, 당시 전문 사경승에 의해 함께 제작된 사경으로 생각된다. 사경의 서체는 일반적으로 고려사경에 많이 나타나는 구양순체로 쓰여 있지 않고, 원대에 유행한 조맹부체를 바탕으로 사성되었다. 발문에 따르면 이 사경은 같은 해 5월에 필사되었으나 호림박물관 사경은 9월에 필사되었고, 이 사경이 권자본임에 비하여 호림박물관본은 절첩본인 점이 다를 뿐이다.⁶³

사성기와 변상도는 그 가장자리에 金剛杵文으로 장식되었고, “賢首品第十二之下”라는 제목의 변상 역시 금니로 묘사되었다. 이 사경은 제8-9장이 탈락되었는데 (해인사 대장경 판본의 제15권 제13쪽의 제8항부터 제16쪽 제19항까지가 탈락된 것임) 뒤쪽의 張數 표시는 제8장과 제9장은 원래 10장과 11장을 고쳐 쓴 흔적이 뚜렷하다. 현재 9장이 남아 있지만, 원래는 11장으로 연결되었던 사경이다. 이 사경은 宋元本 私刊本 계통의 불경을 바탕으로 寫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추정은 본문



도 4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卷十五 발문

⁶³ 호림본 역시 권자본을 후에 절첩으로 변형한 것은 아닌지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도 5 大方廣佛華嚴經第十五卷變相 고려대장경판화

8항(行)에서 '彼光'의 '光'字를 '先'자로, 14항(行)의 '酥燈'을 '蘇燈'으로 표기한 송대의 避諱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수 변상의 우측에 놓인 발원문의 위치나 체재가 호림박물관본과 동일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5

榮祿大夫徽政使領掌謁卿延慶司事 臣 鄭禿滿達兒

竊念荷父母訓育之德

皇帝

皇太后 舍人太子 眷遇之恩獲事

兩宮位階一品永懷罔極徒感寸誠於是金字書寫

佛華嚴經一部凡八十一卷首楞嚴經一部十卷爰伏

佛乘祈

天永命伏願

乾坤比於覆燾日月並於照臨家國咸寧人神均慶

元統二年甲戌五月日 謹誌

그 뜻은 “영록대부 휘정사령 장알경연경사 사인 신하 정독만달이는 부모님에게 지어진 훈육지은을 간절히 생각하여 황제와 황태후 그리고 舍人 太子의 후대하신 덕으로 兩宮의 獲事는 위계가 일품이라. 기리 망극함을 품어 한갓 적은 정성이지만 부처님의 화엄경 1부 81권

과 수릉엄경 1부 10권을 금자로 서사하여 이에 부처님께 엮드려 天자의 永命을 기원하나니 바라옵건대 乾坤은 덮고 실어서 도우고, 해와 달은 비추어서 가지런하며, 가정과 나라는 모두 편안하여 人神이 고루 경사로와지이다. 원통 2년 갑술 5월에 기록하노라.”라고 하였다. 다만 발원문 가운데 화엄경 일부 81권이라 한 것은 신역 화엄경 80권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80권본이란 조선시대의 목판본 화엄경에서도 81권으로 구성⁶⁴되는데, 이 발원문의 기록에 따라 이 같은 전통은 고려시대에 이미 유행하였음을 알게 한다.

발문에 나타난 鄭禿滿達兒는 이 사경의 발원자인데 이 같은 몽고식 표기 역시 주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려사』에는 수많은 사경승이 원에 징발되어 사경을 완성하고 귀국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실질적 자료가 이들 사경의 출현으로 인하여 확인된 셈이다. 그것은 사경의 체제가 고려의 일반 사경과도 다르지만 발원문을 적고 있는 識記에서 더욱 그러하다.

원통 2년 갑술년은 충숙왕 복위 3년이 되는 1334년에 해당되고, 사경의 발원자 鄭禿滿達兒의 출신 등에 대하여는 자세하지 않으나 『四部叢刊』에 수록된 기록에 의하여 그의 활동 시기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즉 元代의 문인 虞集(1271-1348)의 기록에 의하면 독만달아는 이 사경이 완성되는 해에 遼東으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通州를 침략하였으나 실패하고 있다.⁶⁵

그리고 『宋學士文集』에 기록된 그의 神道碑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참조된다.

“……칙서를 받들어 徽政院使 禿滿達兒의 신도비를 지었다. 이에 독만달아의 조카(從子)가 백금 50량으로 사례를 하자 공이 물리치며 말하기를 ‘나라의 체면에 있어 당연한 것이다.’고 하였다.”⁶⁶

⁶⁴ 영조 51년(1775) 개판의 경상도 安義(咸陽郡) 靈覺寺 화엄경 목판본의 경우 淸涼疏의 신역 80화엄 39품이면서 마지막 1권이 般若譯의 보현행원품 1권이 추가되어 81권이 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상한이 이곳 금자경의 발문에서와 같이 14세기에 이르고 있다.

⁶⁵ 虞集, 『道園學古錄』卷24, 碑銘, 「曹南王勳德碑」, 四部備要 集部, 中華書局據明刻本校刊, “甲戌禿滿達兒 自遼東引兵寇通州 賜寶劍弓矢鞍轡令也 速迭兒帥 諸翼軍馬出禦之”라 하였는데 文淵閣 『四庫全書』(集部146 別集類), 『道園學古錄』卷24 第7장에는 “甲戌圖們岱爾 自遼東引兵寇通州 賜寶劍弓矢鞍轡令伊 蘇岱爾帥 諸翼軍馬出禦之”라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⁶⁶ 宋濂, 『宋學士文集』卷59, 「國史危公新墓碑銘」, 四部叢刊 集部71, p.446, “奉勅書徽政院使禿滿達兒神道碑 其從子以白金五十兩爲壽 公却之曰 國體當爾 云云”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그의 신도비가 건립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의 지위나 역할로 보아 이 정도의 금자사경 제작을 발원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원문 가운데 鄭禿滿達兒는 賜姓인지, 또는 고려인으로 몽고명을 가졌는지는 자세치 않으나 사경의 卷首 형식은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고려사경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경은 발원문의 내용이나 형식으로 볼 때 원의 패망(1368년) 34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그것도 『고려사』에 자주 기록되고 있는 원나라에 차출된 고려 사경승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⁶⁷

2. 호림박물관 소장 紺紙金泥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이 사경은 표지의 화려한 금은니보상화문과 함께 卷首에는 변상화를 지니고 있는 금자경이다. 사경변상은 절첩 3매로 구성되었으나 그 우측 1매는 발원문을 적고 있는데 절첩인 점이 다를 뿐 앞의 코리아나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한 체재이다도6.

사경화의 중앙에는 보현보살을 배치하였는데 상부의 寶蓋에는 2행으로 「普賢十大願王」이라 하였고, 광배 부분에서 이어진 빛을 타고서 보살들과 寶瓶이 허공에 떠 있으며, 그 아래에도 수많은 보살들이 보현보살을 향하여 합장해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도상화된 금강저의 결계 내부에 그려져 있는데 모두 다 보현보살의 10대행원을 듣고 찬탄하는 것으로 보인다도7. 본문은 1행 17자이며 계선을 두었고, 친지선은 굵고 가는 쌍선이다. 서체는 둥글둥글한 전형적인 사경체를 나타낸 매우 아름다운 서체이다. 권수에는 코리아나본과 같은 원패형식의 관곽 속에 발원문을 적었고, 권말에는 3종의 보현보살 眞言과 함께 年紀만 기록하였다.

권수의 발원문은 다음과 같다도8.

資善大夫將作院使安 賽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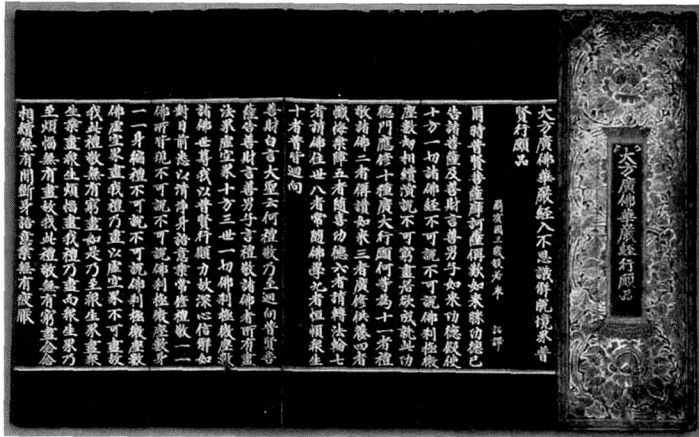
切念荷父母訓育之恩

皇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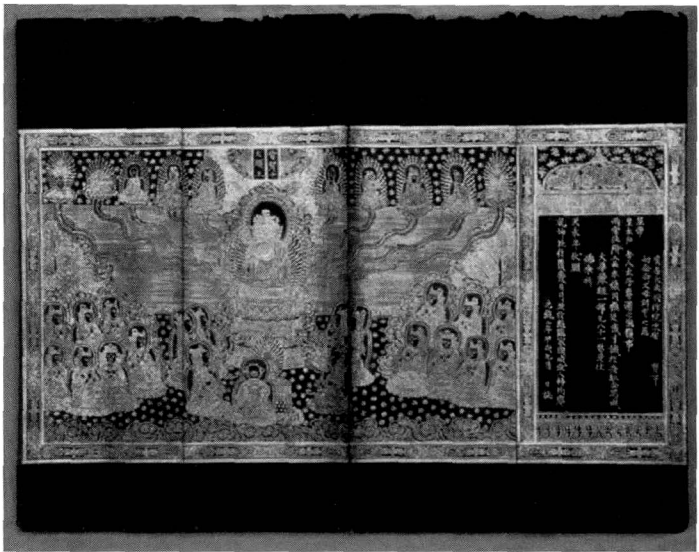
皇太后 舍人太子眷遇之德獲事

兩宮位階二品永懷罔極徒感寸誠於是癩金寫成

⁶⁷ 발원자가 몽고명으로 나타난 발원문의 내용에서도 그러하거나와 권수변상 앞부분에 나타난 識記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그 같은 추정이 가능해진다.



도 6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卷首, 1334년,
34×11.5cm, 湖林博物館



도 7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變상

大華嚴經一部凡八十一卷爰伏

佛乘祈

天永命伏願

乾坤比於覆燾日月疊於照臨家國咸寧人神均慶

元統二年甲戌九月 日誌

그 뜻은 곧 “자선대부 장작원 使 安 賽罕은 부모님에게 지어진 훈육지은을 간절히 생각



도 8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발문

하여 황제와 황태후 그리고 舍人 太子의 후대하신 덕으로 兩宮의 獲事는 위계가 二品이라. 기리 망극함을 품어 한갓 적은 정성이지만 금으로써 대 화엄경 1부 81권을 사성하여 이에 부처님께 엮드려 天子의 永命을 기원하나니 바라옵건데 乾坤은 덮고 실어서 도우고, 해와 달은 비추어서 가지런하며, 가정과 나라는 모두 편안하여 人神이 고루 경사로와지이다. 원통 2년 갑술 9월에 기록하노라.”라고 하겠다.

위 발원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경은 원나라에서 安 賽罕의 발원에 의하여 제작된 것인데 화엄경 81권을 금으로 필사한 것 역시 앞의 코리아나박물관 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실차난타 역의 이른바 80화엄경이 아니고, 般若 역의 貞元 新華嚴經(40卷本) 가운데 「보현행원품」이므로 우리나라에서 통칭되는 80화엄의 마지막 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원문의 체재나 변상으로 보아 앞의 코리아나박물관 소장 감지 금니 『대방광불화엄경권』15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동일한 사경으로 짐작된다. 즉 원통 2년은 고려 충숙왕 복위 3년(1334)에 해당하는데 발원문과 변상의 형식은 말할

것도 없고, 발원문의 내용으로 보아 코리아나박물관 소장본과 같은 원나라에 징발되었던 사경승에 의하여 제작된 사경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사경은 추가된 般若譯의 普賢行願品이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발문에 기록된 이른바 화엄경 81권의 마지막 권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된다.

IV. 기타 참고사경

호암미술관 소장 紺紙金泥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이 사경은 표지에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이라 하였으며 經題 주변에는 금은니보

상화문을 등장시켰다. 권수에는 금니의 변상도가 折帖 4장에 연이어져 있고 그 배면에는 「行願品 變相 文鄉畫」라고 있어 文鄉은 고려 화승의 한 사람임을 알게 한다. 변상화의 구도는 우측 중앙 조금 높은 곳에 비로자나불좌상을 배치하고 좌측 조금 낮은 곳에는 보현보살좌상을 등장시켰으며 이들 불보살 주위에는 보살, 나한, 천왕 등을 배치하였다. 변상도의 크기는 17.6×36cm이며 세련된 필치 역시 매우 섬세 유려하다도9.

본문은 천지선을 긋고 가는 쌍선으로 하였으며 1행 17자의 일반적 체재이다. 일찍이 이 사경은 일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⁶⁸

권말에는 7행의 발문이 있으나 불행히도 첫 줄이 마손되어 연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도10.

至□□□□□□□□□□□□□□□□
 三重大匡寧仁君李也亥不花
 懇發丹心寫成行願品金剛經長壽經彌
 陀經父母恩重經普門品各部所集功德
 皇圖永固
 □□□昌象及身無病長生一門眷屬各消災殃
 □□旨及法……同成佛道者

이상 발문에서 至(正)⁶⁹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정일품의 「三重大匡」의 기록을 들어 충선왕대의 작품으로 추정⁷⁰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寧仁君李也亥(友·久)不花에 대하여 “영인군은 공민왕 17년(1368) 元으로부터 돌아온 왕자였으며, 也亥不花는 蒙古名으로 원에 附逆했던 한 고려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⁷¹고 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즉 이 곳의 蒙古名은 영인군의 별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至大年間(1308-1311)으로 올려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들은 “全禿萬帖古思로 寧仁君을 삼았다.”⁷²고 한 것으로 보아 한때 영인군의 몽고

68 黃壽永, 「高麗金字寫經의 新例」, 『考古美術』 16호(1961).
 69 위의 글.
 70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미진사, 1986), p.402.
 71 『한국미술전집』 12, 회화(동화출판공사, 1973), p.137.
 72 『高麗史』, 世家 33, 「忠宣王 元年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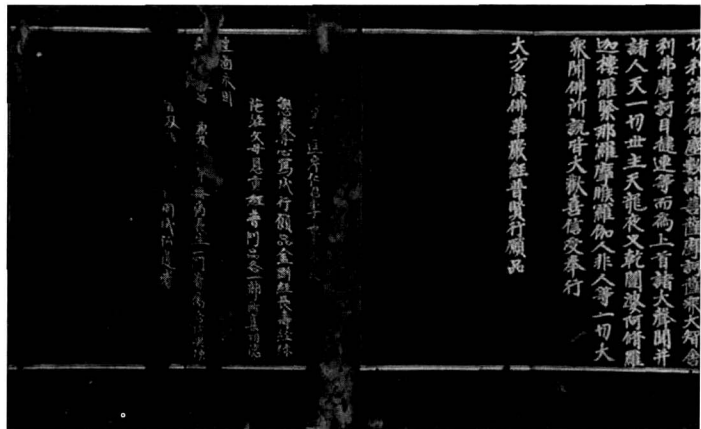
도 9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
願品, 忠宣王,
원년-4년(1308-1311),
26.4×9.6cm, 折帖,
국보 235호, 호암미술관



도 10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
願品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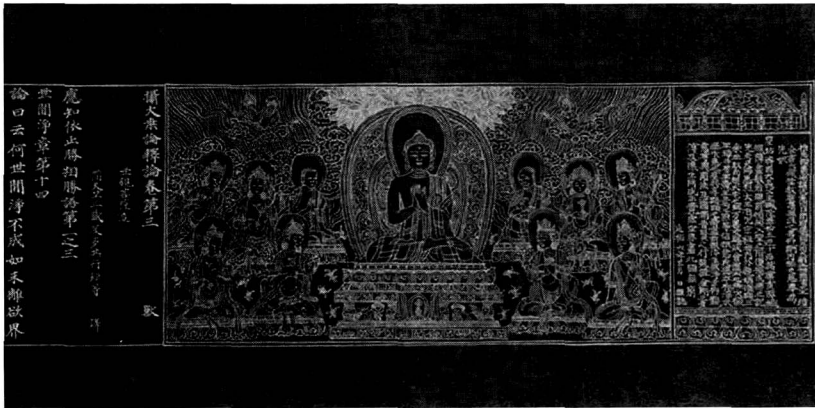


명이 全秃萬帖古思였음을 알게 한다. 발문에 따르면 당시 행원품의 이 사경과 함께 금강경, 장수경, 미타경, 부모은중경, 보문품 등 여러 권의 사경이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발원자가 李也亥不花란 몽고식 이름을 적고 있어 당시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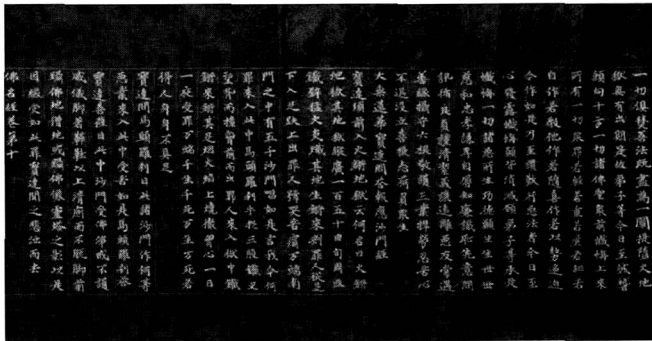
다만 이 사경의 경우 앞의 코리아나 및 호림박물관 본과는 형식상 차이가 있어 원나라 차출 사경승의 작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4세기 당시 유행한 사경의 한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서울 개인소장 紺紙金泥 攝大乘論釋論卷第三(1319년)도¹¹ 또는 紺紙金泥 佛說佛名經卷第十(1319)도¹² 등이 卷首의 변상이나 발원문 등의 형식은 위의 원나라 차출 사

⁷³ 張忠植, 「高麗金銀字大藏經」, pp.312-316 본문 및 도판 참조.



도 11
紺紙金泥攝大乘論釋卷第三,
1319년, 개인소장



도 12
紺紙金泥佛說佛名經卷第十, 1319년,
개인소장

경승 작품과 동일하나 발원문의 내용⁷³으로 보서는 차이가 있다.

V. 사경의 형식

원나라 차출 고려 사경승 작품으로 추정된 위의 사경 가운데 발문의 형식과 체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寫成記로서의 識記를 권말에 필사하던 형식에서 권수로 변화된 점.
- 2) 識記는 권수변상과 나란히 놓이면서 변상보다도 선행하는 우측에 위치한 점.
- 3) 종래의 고려사경은 국왕 발원경의 경우 연호가 앞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 형식임에 비해 이 사경은 발원자를 앞에 놓는 고려의 일반 사경 형식을 추종하였다.⁷⁴

- 4) 이 시기의 일반적 고려사경의 지기에는 「特爲」 「伏爲」로 시작하여 「皇帝萬歲」를 빌고 그 다음 「國王千秋」 혹은 「國王 · 宮主千秋」를 기록하는 형식이나 이곳에서는 이와 달리 발원자 자신과 황제, 황태후, 태자의 은혜를 들고 사경의 내용을 열거한 다음 「爰伏佛乘」이라 하여 천자의 永命을 기원하고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형식이다.
- 5) 일반적 고려사경의 지기에도 발원의 내용이 있지만, 이는 그 연유를 적고 있는 발문 형식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일종의 발원문 형식으로 정착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 6) 화엄경의 경우 80권본 화엄경에 반야 역의 『普賢行願品』 1권을 추가하여 81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형식은 이후 조선시대까지도 한국 화엄경 開板의 한 전통으로 계승되었다.
- 7) 변상의 형식은 일반적 고려 화엄경 판화나 사경의 형식과 다를 바 없는데, 이는 불경이 지닌 사상적 고유성이나 독자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연한다면 같은 내용의 변상을 그대로 轉寫한 형식이므로 화엄경 판화에서 잘 확인되지 않았던 飛龍의 도상이 이곳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 도상 이해에 도움이 된다.

VI. 맺음말

13세기 이후 고려는 몽골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自救의 길을 선택하여야만 하였다. 그것은 외부적으로는 몽골의 정책을 수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타 피지배 족과도 다른 실용적 노선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경미술을 통하여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몽골의 지나친 조공과 착취는 새로운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는 동아시아 최고의 사경 종주국으로서의 고려의 위상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고려사경의 지질이 나 제작기술은 중원을 능가하였는데 이는 계속된 사경지의 요청이나 사경승의 차출에서도

⁷⁴ 물론 고려의 개인 발원사경에도 연호가 앞에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뒤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비슬아치의 발원사경의 경우 연호를 앞에 놓는 경우도 있다.

잘 나타냈다.

원나라에 차출된 고려 사경승 작품으로 추정된 이들 사경의 제작시기가 元統연호를 사용하던 매우 짧은 시기에 한정되어 있었다. 원통연호는 불과 2년이고 혼란의 시기였으나 鄭禿滿達兒와 安賽罕 발원의 이 사경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그 체재는 고려의 일반사경과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권수의 형식, 특히 발원문의 위치나 내용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발원자는 사경의 발문에서 몽골명을 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鄭’이 賜姓인지 또는 고려인으로서 이름만 몽골명을 사용하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출현과 함께 더욱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통연호가 사용된 이들 사경에 앞서서도 차출된 사경승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도 더욱 추구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뜻에서 이들 사경 발견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원나라 차출 고려 사경승 작품의 작은 일부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사경의 대외 영향관계나 당시 동북아에 있어서 고려사경의 국제성 해명에 일조가 되리라 본다. 또 발견된 사경이 금자경 위주이면서 화엄경이 주종을 이루었던 점 역시 당시 원의 경제력이나 몽골의 정복정책과도 연관될 것으로 짐작된다.

* 주제어(key words) __ 寫經美術(Transcription Art), 寫經(Suzerain of transcription), 寫經僧(Monks made Transcription), 楮紙(A Paper Mulberry), 高麗寫經紙(Transcription Paper of Goryeo), 變相(Diagram of Sutra), 鄭禿滿達兒(Jeong Dokmandara), 安賽罕(An Saehan)

▣ 투고일 2004년 12월 30일 | 심사일 2005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2005년 8월 1일 ▣

국문초록

13세기 이후 고려는 몽골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自救의 길을 선택하여야만 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는 몽골의 정책을 수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타 피지배 족과도 다른 실용적 노선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경미술을 통하여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몽골의 지나친 조공과 착취는 새로운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는 동아시아 최고의 사경 종주국으로서의 고려의 위상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고려사경의 지질이나 제작기술은 중원을 능가하였는데 이는 계속된 사경지의 요청이나 사경승의 차출에서도 잘 나타났다.

원나라에 차출된 고려 사경승 작품으로 추정된 이들 사경의 제작시기가 元統연호를 사용하던 매우 짧은 시기에 한정되어 있었다. 원통연호는 불과 2년이고 혼란의 시기였으나 鄭禿滿達兒와 安賽罕 발원의 이 사경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그 체제는 고려의 일반사경과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권수의 형식, 특히 발원문의 위치나 내용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발원자는 사경의 발문에서 몽골명을 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鄭’이 賜姓인지 또는 고려인으로서 이름만 몽골명을 사용하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출현과 함께 더욱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통연호가 사용된 이들 사경에 앞서서도 차출된 사경승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도 더욱 추구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뜻에서 이들 사경 발견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원나라 차출 고려 사경승 작품의 작은 일부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사경의 대외 영향관계나 당시 동북아에 있어서 고려사경의 국제성 해명에 일조가 되리라 본다. 또 발견된 사경이 금자경 위주이면서 화엄경이 주종을 이루었던 점 역시 당시 원의 경제력이나 몽골의 정복정책과도 연관될 것으로 짐작된다.

ABSTRACT

Goryeo Scribe Monks Transferred to Yuan and Their Works

Chang Choongsik

After the 13th Century, Goryeo had to find their own way in a new world order dominated by the Mongols. Although Goryeo accepted policies imposed by the Mongols, it sought a more practical line,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 ethnic groups in and around the Mongol empire. These are confirmed by the art of copying Buddhist scriptures. The excessive tribute and exploitation of Mongolia brought the development of a new culture, which became the result verified the phase of Goryeo as a suzerain that made the highest quality transcription in East Asia. Especially paper quality and production technique was superior to China, Yuan's request of paper and monk reflected the temporary situation.

The production of scriptures copied by Goryeo monks transferred monks to Yuan was limited to a short period in the reign of Yuantong (元統). The reign name Yuantong was used only two years, which was chaotic period. However, this transcription made a vow by Jeong Dokman dara (鄭禿滿達兒) and An Saehan (安賽罕) made the same period, the structur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transcription of Goryeo period. The difference becomes clear in the form of head of volume, especially the location and the contents of prayer paper. In case of prayers they used Mongolian name or Chinese name in a postscript of transcription. Of all these kinds of names Jeong (鄭) is not sure that the surname is granted by the royal house or use Mongolian name as a Goryeo person.

Before the transcription used a name of an era Yuantong, there are transcriptions made

by the monks transferred to Yuan Dynasty. This study will go far toward solving the international characteristic and foreign relation of Goryeo's transcrip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founded transcription was written by the gold and copied the *Avatamsaka Sutra*.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Yuan Dynasty's economy and conquers policy.